

농어촌지역의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 수유 · 이유 · 배변훈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ld-Care in Rural Korea :
Feeding, Weaning and Toilet-Training

임 회 규 *
Lim, Hee Kyo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 description of general trends in feeding, weaning and toilet training in agricultural and fishing communities in Korea, where the traditions are better preserved; thereby to present useful material for improving child rearing pract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 1) Breast-feeding is the dominant form of nursing. The mother nurses freely whenever the baby wants to be fed. The mother caresses the baby while she nurses him. The nursing period is relatively long, up to 1 and a half years.
- 2) Generally, the time of weaning starts late - between 9 months and 18 months. Many mothers apply a bitter tasting solution to their nipples to aid weaning. The many things give a baby foods, the recipe for which they acquire knowledge from his family and acquaintances.
- 3) Toilet training generally starts after 1 full year. Potties are commonly used. The infant is reminded of its error whenever it makes a mistake and cleanliness is stressed. Urination and defecation are taught to be dirty things.

In summary, discipline is not strictly enforced but given naturally as the infants grow. This was interpreted in terms of the traditional way of life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I. 序 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한 生命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社會는 家庭이다. 아기는 가정에서 父母 및 가족구성원의 양육에 依하여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발달한다.

* 동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특히 嬰乳兒期는 一生을 통하여 가장 많은 성장을 하므로 발달심리학자와 유아교육학자들은 嬰乳兒期를 인간발달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 부른다.(李榮碩, 1982).

嬰乳兒시절의 중요성에 관하여 Sullivan은 인성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乳兒期이며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이때 形成된 性格은 성인이 된 후의 性格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Kardiner는 “한 사회에서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문화에 따라 일정한 型을 이루며 자녀양육의 문화적인型은 사회에 따라 다르다”(Kardiner, 1950, p.170)하여 각 시대와 각 社會는 各各의 문화적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社會의 文化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은 그 社會의 育兒方式이다(柳岸津, 1982). 育兒方法은 곧 文化의 핵심이며 관습의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양육방법은 가족의 조직과 분위기에 따라 다르고, 가족의 사회 문화적 계층,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며 풍습으로 표현되어 그 社會의 성격을 결정한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개인의 성격바탕은 적어도 5세까지 거의 핵심이 결정되며 특히 口腔期인 출생後 1년간의 授乳方法과 肛門期인 2~3세에 있어서의 대소변 가리기가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閔榮順, 1978). 또한 인류학자들의 결론에 依하면 “어린이에 대한 授乳 離乳·排便訓練이 자라서 성인의 성격형성에 밀접한 관련을 주고있다. 즉, 젖먹이는데 너무 각박하지 않고 젖떼는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는것과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 관대하고 낙천적이며 협조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대로 젖을 잘 주지않고 일찍 젖을떼면, 공격적이고 참치 못하며 잘 싸우고 경쟁적이 되는수가 많다(尹泰林, 1970)고 한다.

아동의 사회적 특성의 형성은 肛門期의 대소변가리기 훈련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되므로 이 시기에 유아에게 주는 억압이나 좌절감은 성격형성에 장애를 받게된다(조정순, 1971). 또한 幼兒의 정서에 큰 영향을 주어 대소변가리기에 관대하면 남을 알잡고 기회적이며 부조리하고 원칙이 없으며 피상적인 소유자로 만들기도한다. 이와같이 인생 초기의 수유·이유·배변훈련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방법은 기본적인 성격의 바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유아의 성격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수있다. 그러므로 수유·이유·배변훈련은 바람직한 유아교육을 위한 바탕으로써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유아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中 어머니의 수유·이유·배변훈련을 中心으로 영동지역을 택하여 연구하려 한다. 영동지역은 전 면적의 80%가 임야와 농경지로 되어있으며 동해는 한류와 난류가 남북으로 교류하고 있어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등이 대량 분포되어 있기때문에 농업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이 많다. 文化의 발달은 강릉지방을 中心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기때문에 정치·경제·문화의 취약지구가 되고있다. 따라서 아직도 전통사회의 관습에 따라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자녀의 양육방식의 관행을 존중하고 인륜을 중요시하는 영동지역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유·이유·배변훈련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보다 바람직한 자녀의 양육과 성격형성, 나아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영·유아 육아법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및 영·유아교육을 전개하는데 유익한 자료로 하기위함에 목적이 있다.

2. 研究의 問題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양육방법의 핵심이 되는 수유·이유·배변훈련의 내용을 알아보고 질문지를 통하여 오늘날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의 수유·이유·배변훈련에 대한 방법 및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수유·이유에 대한 육아 실천방법과 태도는 어떠한가?
- 2) 배변훈련에 대한 육아 실천방법과 태도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1) 수유·이유·배변훈련은 어머니 뿐만 아니라 남편과 그 외의 가족도 관계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녀양육의 초기단계는 주로 어머니 역할이 더 직접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방법에만 관심을 두었다.

2) 전국의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지않고 영동지방의 일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질문지의 배부와 회수의 편의상 새마을 유아원에 在園중인 유아의 가정만으로 제한하였다.

3) 육아 실천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연구방법을 택할 경우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결론을 얻을수 있겠으나 조사방법이 용이한 질문지 법을 택하였다.

II. 理論的背景 및 先行研究

1. 수유·이유·배변훈련과 성격형성과의 관계

Freud는 육아과정에서 핵심이되는 수유·이유·배변훈련이 유아의 인성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하여 젖을 마음대로 먹으며 입술의 만족을 즐기면 성장한後 성격이 낙천적이며 조바심이 없는 자가 되고, 반대로 젖을 먹는데 제한이 많고 방해를 받으면 의존적이며 비꼬기를 잘하고 언쟁을 즐기는 성격이 된다고 한 바 있다.

Erikson은 수유 및 이유의 시기 즉 생후 1~2년동안을 신뢰감과 불신감의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에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 수립을 중요시하였다. 즉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빨고 만족스러운 감각과 접촉을 즐긴 유아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기본적 신뢰감이 형성되어 새로운 경험에 대해 비교적 호감적인 기대로 받아들일 태세로 갖추게 되지만, 수유를 통한 母子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 시기에 기본적 불신감이 형성되면 의심이 많고 새로운 경험을 피하는등 인성발달에서 病的 요소가 발생한다고 보았다(Maier, 1965, pp.12-74). 그러므로 수유태도와 시간은 유아의 성격형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자란 유아는 성격이 온순하고 관대하며 낙천적인 기질을 갖게되며,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자란 유아는 불신감을 갖고 비관적인 성격을 갖게된다고 하겠다.

Dollard(1950)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때 규칙적인 시간에 젖을 주기 위하여 아기가 울어도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아기는 공포를 느끼게되고 격렬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했다.

離乳에 있어서 長島貞夫는 離乳를 너무 일찍 실시할 경우 욕구불만을 남겨하여 비관적 견해, 불안정감, 소극성을 형성시켜 유아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주게되며, 그렇다고 너무 늦게 그리고 서서히 행해지는 離乳는 낙천적인 성향, 자기확신, 의존적 성격을 키운다고 주장하였다(金在恩, 1975, p.175). Murphy(1947)는 싫어하는 것을 무리하게 離乳시킨 유아는 받는것만 좋아하고 주는것을 싫어하며 의존적인형이 된다고 하였다(張乘林, 1973, p.233). 너무 갑자기 젖을 떼면 유아의 감정적 혼란상태를 일으켜 감정이나 욕구좌절로 이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격이 난폭해진다든가 울기를 잘한다든가 음식을 안먹으려 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安현화, 1961).

그러므로 離乳의 시기와 방법은 유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거나 너무 일찍 무리해서 離乳를 시키면 욕구불만과 불안정성 비관적이기 쉽고 너무 늦으면 의존적 성격이 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시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하겠다.

입을 통해 세계를 배우는 口腔期가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라면 생후 1~2年後 肛門期는 자율과 의문의 시기라 할 수 있다.

排便訓練은 인성발달의 제 2 단계로서, 肛門期에 훈련이 잘된 유아는 자라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나 훈련이 너무 조급하거나 심하면 심한 노여움 불복종 잔학성이 옹트고, 적의, 불안 등으로 반항하는 성격을 발달시키게 된다(尹泰林, 1964).

훈련시기를 너무 일찍하면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며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갈끔하고 예절적이며 소극적인 반항의식과 외고집의 성격을 형성하게된다. 훈련중에 만족감을 얻게되면 훈련을 받아들이는 강한 동기가 생길뿐더러 후에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김호규譯, 1974).

대소변가리기 훈련時 실수를 했을때 야단을 치면 복종적인 사회적特性을 보인다. Freud 파 심리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排便훈련을 가혹하게 지도하면 유아들은 가혹한 마음을 소유하며, 부모의 외적인 요구가 엄격하면 유아의 마음이 엄격하고 공포적인 방향으로 발달될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들은 어머니의 양육방법에 관계되며 유아의 바람직한 성격형성을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과 태도로 훈련을 하는 것이 이상적임을 깨닫게 하고있다.

2. 수유와 이유의 방법 및 태도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있어서 적당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은 그들의 건강에 필수요건이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유의 우수성은 論難의 여지없이 인정되고 있다(Silvio & Parva, 1953, pp. 38-43). 모유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면역성도 높여주며 수유 무월경 기간을 연장시켜 생리학적 출산 터울을 길게하고 산후 자궁수축을 촉진하여 건강회복이 빠르다.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높고 소화기 감염율이 낮은 등 인공유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갖고있다.

전통사회에서는 대부분 모유로 아기를 키웠으나 오늘날 인공수유에 따른 경제적, 위생적인 단점과 대체 음식물의 선택 문제점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유를 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先祖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는 젖가슴을 뜨거운 물수건으로 맛사지 하거나 손으로 수시로 주물러서 초유가 쉽게 나오도록 유도하여 초유를 아기에게 먹였다. 수유시간에 있어서는 배없이 언제나 아기가 원할때 젖을 먹였으며 아기가 좀 자라면 하루에 7~8회씩 먹이다가 차츰 회수를 줄여 똥이 지날때까지 주었다. 수유태도를 중요시 하여 젖먹일 때 아기를 쓰다듬어 주었으며, 수유모는 인삼과 엿기름을 먹지 못하게하여 젖이 많이 분비되도록 했다.

20세기後 구미각국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젖을 먹이는 것이 좋다는 소리가 높아져서 모유를 먹이는 사람도 이 시간표에 따라 수유하는 것이 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근래에 와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사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아기가 원하는 시간에 젖을 주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게 되었다 (주정일, 1981). 아기의 胃크기나 소화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모유의 수유량에도 변동이 있고 젖먹은 뒤의 활동도 각기 다르다. 수유시간이 되었다고 억지로 젖을 먹이는 일이나 배가 고파서 우는 유아에게 수유시간이 되지 않았다하여 시계만 보고 젖을 주지 않는일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

生後 5~6개월 까지의 乳兒는 모유나 인공유로 순조롭게 발육할 수 있으나 6개월 이후는 발육 성장에 수반되는 필요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離乳준비를 해야한다. 그 理由는 유아의 체중이 차츰 정상적인 증가를 보이지 않게되고 빈혈이 되기도 하며 저항력을 상실하여 세균 감염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신체적 발달면에서도 생후 6개월이 되면 乳兒가 본능적으로 젖 외의 식품에 대하여 생리적, 심리적 요구를 보이게되고, 고형식을 주어 씹는 연습을 시키면 齒齦을 자극하여 7개월 이후의 乳齒발생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Fomon, 1967).

離乳開始의 적절한 시기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이 있다. Sears, Maccoby 그리고 Levin (1967)은 離乳를 해야할 적당한 시기는 “똥 전에 시작해서 2세전에 그치는 것이 좋으며 2세 후에는 유아들이 자연적으로 이유하게 된다”는 평균 離乳開始期를 생후 7~8개월로 하고 離乳完了期를 생후 11~14개월이 최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젖니가 생겨 어머니의 유두를 무는 시기가 되면 젖 떼 준비를 해야한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離乳의 시기는 유아가 늦도록 젖을 먹다가 두세살이 되어 어머니가 동생을 잉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젖 떼는 시기였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離乳의 방법은 어머니의 유두에 쓴약이나 먹물 잉크等を 발라서 유아에게 “지 지다” “에비다”라고 말하거나 쓴맛을 보임 (柳岸津, 1982)으로써 유아가 젖먹는 것에 혐오감을 가져 유방을 멀리하도록 했다. 또는 유아가 젖을 빨때마다 어머니가 아픈 시늉을 하여 유아가 어머니를 동정하여 협조하게 했으며, 또한 말로써 놀리거나 수치심을 주어 젖을 멀리하도록 한 다든가 물을 적게 먹고 유방을 꼭 졸라매어 유아에게 젖을 보여주지않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

離乳食에 있어서 전통사회의 상류가정에서는 잣죽이나 깨죽 미수가루 백설기 등이 사용되었고, 서민가정에서는 미수가루, 떡조각, 밥죽, 누른밥 등이 이용되었으며, 어른들의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씹어 먹이든가 그냥 먹였다. 오늘날의 離乳食으로는 상품화된 식품이 있으며 가정에서 조리하여 먹이는 것으로는 주스류, 달걀 삶아다진것, 각종 채소와 고기를 혼합한것, 다진 쇠고기 고기국물에 밥을 말아 만든것, 미수가루 등이 주로 쓰인다.

3. 배변훈련의 방법 및 태도

인간의 생리적 기능의 하나인 排泄작용은 의존적인 시기를 벗어나 내장의 조절과 함께 항문기가 시작됨으로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배변훈련의 중요성과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어졌으나 일반적으로 배변훈련의 시기는 유아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을 기저로하여 유아가 혼자 앉을수 있고 서서 쉽게 걸을 수 있으며 신경조직의 발달로 요도나 항문 괄약근의 조절이 가능한 시기가 효과적이다 (Marlow, 1969).

전통사회에서의 배변훈련 시기는 離乳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때가되면 저절로 가린다”는 급하지 않는 태도로 이루어졌다.

훈련의 방법은 《단지 팔기》놀이 (柳岸津, 1982)를 통하여 대소변이 불결하다는 생각을 갖게하여 유아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서 싫어하는 대소변을 가리는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훈련방법은 男兒의 경우 고추를 보거나 만져보고 女兒는 주기를 짐작하여 소변은 “쉬이”, 대변은 “응가”라는 말을 함으로써 대소변을 보는 신호로 삼아 훈련하였다.

사용기구로는 요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여름철에는 밖에 정해진 장소인 거름더미나 마당 귀퉁이에서 대소변을 보는것이 허락되기도 하였다.

훈련과정에서 투정을 부리거나 떼를 쓰면 “침 놓는다”, “도깨비 온다” 등으로 말하여 두려움을 갖게해서 달랬다. 훈련도중 실수를 했을때는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으나 키를 썩워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보내서 참피를 주는 방법이 쓰이기도 했다.

Corday는 배변훈련은 12개월 이후에 시작함이 좋다고 하였고, Marlow는 1세부터 시작하여 2세가 되면 낮에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된다고 했으며, Olansky는 훈련은 늦을수록 바람직하며 현실이 될때까지 완성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임연, 1979)고 하였다. 그러므로 훈련의 적당한 시기는 유아가 훈련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를 파악하여 유아가 배설작용에 대해 흥미를 갖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성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속초, 동해, 강릉의 농촌 어촌에 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가능한한 정확한 기억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새마을 유아원에 재원중인 유아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600매의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464매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77.33%이었다. 미비한 것을 제외한 412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30대가 64.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24.28% 40세 이상은 11.16%로 평균

연령은 34.4 세이었다. 학력은 중졸이 45.14%, 고졸 28.16%, 국졸 22.82%, 대졸 3.88%로 낮은편이었다. 월소득은 20~30 만원이 31.55%로 가장 많았으며, 10~20 만원이 27.67%, 30~40 만원이 16.5%, 40 만원이상이 13.45%, 10 만원미만이 7.28%로 낮은편이었다.

2. 측정도구 및 자료처리

오늘날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의 수유·이유·배변훈련에 대한 방법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도구로 김재은(1975), 임연(1979)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피험자의 신분자료를 얻기 위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월소득을 질문하였으며 조사문항은 분만 장소와 수유·이유·배변훈련 각각 5 문항씩 모두 16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6월 17일~20일까지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7월 3일~7월 10일까지 해당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된 것을 회수하였다.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농어촌 어머니의 분만장소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집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49.03%로 상당히 많으며 조산원의 힘을 빌리는 경우는 20.39%나 되었다.

<표 1> 분 만 장 소

장 소	구 분	N	%
집		202	49.03
조 산	원	84	20.39
개 인	병 원	92	22.33
종 합	병 원	26	6.31
기	타	8	1.95
계		412	100

병원분만의 비율이 적으며(28.64%), 특히 종합병원 분만의 경우 6.31%에 불과하여 농어촌 지역에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김재은(1975)의 대중소도시의 연구결과 집에서 분만한 경우가 41.3%, 친정이나 친척집이 4.3%,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54.4%와 비교해 볼때 본 연구결과 병원분만의 경우가 훨씬 적으며 집과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율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통적 관습이 아직 농어촌 지역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분만시 안전분만 개조율을 높여 분만에 따르는 위험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이 있어야겠으며 농어촌지역의 병원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유의 방법 및 태도

1) 수유의 종류

아기에게 먹인 수유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 <표 2>와 같이 모유에 응답한 경우가 64.08%, 모유와 우유를 함께 먹인 경우는 23.30%, 인공유만을 먹인 경우는 12.62%로 대부분 모유로 수유하였다. 임연(1979)의 서울지역 연구결과 모유가 55.94%인 것과 비교하면 농어촌지역이 수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승규(1973)의 농촌 대상의 연구결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유로 양육되고 있다”는 결과와는 10년이 지난 오늘날 상당한 변천을 가져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서양문화의 도입과

<표 2> 수 유 종 류

구 분	N	%
모 유	264	64.08
모 유 와 우 유	96	23.30
인 공 유	52	12.62
계	412	100

지역간의 문화교류에서 온 영향이라 여겨지며 또한 모유수유의 장점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시간적 여건에 따른 자연적 수유라 사려되므로 절실한 필요에 의한 교육이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된다.

2) 모유 수유의 시작 시기

“모유를 분만後 언제부터 먹이기 시작했습니까?”라는 질문에 1일이내가 16.02%, 2일 이내가 30.58%로 2일이내는 46.60%이었으며, 3일이내가 33.50%, 4~5일이내는 10.19%, 6일 이후는 2.42%, 전혀 안먹었다가 7.29%로 나타났다. 이는 집이나 조산원에서 분만한 부인이 많았기때문에 수유를 2일이내에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계속해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모의 유두는 처음부터 물려주어야 후에 분비가 잘되는데 병원분만의 경우엔 산모의 수유능력은 고려하지않고 병원에 있는 동안 일방적으로 모유수유를 금지하고 분유를 수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이는 의료전문가들의 올바른 보건의교육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3) 수유의 시간

“아기에게 주로 어느 때 젖을 주었습니까?”의 응답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아무때고 아기가 원할때 주었다가 50.49%, 시간을 정해서 주었으나 보챌때 주었다가 30.58%,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주었다는 18.93%이었다. 문승규(1973)의 농촌지역 연구결과 “시간제가 아닌 수시로 수유한다”는 비율이 93.7%로 나타난것과 비교할때 지난 1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김재은(1975)의 38.87% 임연(1979)의 41.80%가 수시

<표 3> 수 유 시 간

구 분	N	%
아무때고 아기가 원할 때 주었다	208	50.49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주었다	78	18.93
시간을 정해서 주었지만 아주 보챌때 주었다	126	30.58
계	412	100

로·수유한다고 나타난 것에 비하면 본 연구결과 농어촌지역이 수시로 수유하는 비율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유에 있어서 허용적이고 관용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나 아무때나 아기가 원할때 주는것이 더 좋다는 판단에서라기 보다는 지역적특성에 따라 도시지역보다 서구문화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수유시의 태도

<표 4> 수 유 태 도

수 유 태 도	구 분	N	%
쓰다듬어 주면서 먹였다		242	58.74
중얼중얼 얼리며 주었다		58	14.08
조용히 젖만 주었다		112	27.18
계		412	100

“젖을 출때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를 질문한 결과 <표 4>와 같이 쓰다듬어 주면서 먹였다가 58.74%, 조용히 젖만 주었다가 27.18%, 중얼중얼 얼리며 주었다가 14.08%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따뜻한 피부접촉과 시선의 교환은 유아의 정서발달과

사회성발달에 중요하며 중얼중얼 얼려 주는것은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수유 때에는 조용히 젖만 주는것 보다는 쓰다듬어 주거나 중얼중얼 이야기 하면서 젖을 주는것이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의 전달은 물론, 유아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5) 수유의 기간

언제까지 젖을 먹였는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1년~1년반이 34.95%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이 27.18%, 1년반~2년이 17.48%, 2년이상도 8.74%나 되었다. 김종숙(1977)의 서울지역 조사결과 6개월 이내가 12.3%, 1년이내가 31.5%, 1년반 이내가 22.5%, 2년이내 5.5%, 2년이상이 5.8%인 것을 볼때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젖을 먹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리적특성과 사회구조상 언제까지 먹어야하는지 크게 관심을 갖지않고 유아 스스로가 그만 먹을때까지 수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수 유 시 간

수 유 기 간	구 분	N	%
6개월 이내		48	11.65
6개월~ 1년		112	27.18
1년 ~ 1년반		144	34.95
1년반~ 2년		72	17.48
2년 2년 이상		36	8.74
계		412	100

2. 이유의 방법 및 태도

1) 이유의 시작시기

이유의 시작시기는 유아의 성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적절한 때에 실시되어야 한다. “언제부터 젖을 떼기 시작했습니까”의 응답결과 <표 6>과 같이 9개월~1년이 36.41%로 가장 많았으며 1년~1년반이 27.66%, 2년후는 7.77%였다. 김재은(1975)의 결과 1년이 지나서 이유를 시작했다(45.7%)와 비교할때 10년전과 큰

<표 6> 이유 시작 시기

이유시작시기	구 분	N	%
6개월 전		16	7.77
6개월 ~ 9개월		20	9.72
9개월 ~ 1년		75	36.41
1년 ~ 1년반		57	27.66
1년반 ~ 2년		22	10.67
2년 후		16	7.77
계		412	100

차이가 없는것으로 오늘날 농어촌지역의 이유 開始期는 늦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리적 문화적인 폐쇄성으로 이유 시기를 잘 모른채 감정과 전통을 중요시하며 절제가 부족한 사고와 행동양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이유의 방법

“젓을 뭇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이용했습니까?”의 응답결과 <표 7>과 같이 약을 발랐다 39.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젓과 암죽을 섞어 먹이면서 서서히 떼었다로 35.68%였고, 자연히 떼게되었다가 15.05%, 고무젓꼭지를 물렀다가 1.94%, 김재은(1975)의 연구결과 약을 발랐다 33.3%, 다른음식을 대신 주었다는 46.2%와 비교할때 약을 발라서 이유

하는 방법이 농어촌지역에서 오늘날 까지도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思考와 행동이 소

<표 7> 이 유 방 법

이 유 방 법	구 분	N	%
젓과 암죽을 섞어 먹이면서 서서히 떼었다		147	35.68
약을 발랐다		163	39.56
젓을 먹지 않음으로 자연히 떼게 했다		62	15.05
젓을 못 먹도록 어머니와 떨어지도록 했다		23	5.58
고무 젓꼭지를 물렀다		7	1.70
매렸다		10	2.43
계		412	100

박하며 외래문화와의 접촉이 적고 전통적 관습이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계몽교육이 있어야겠다.

3) 이유의 음식

유아들이 이유시기가 되면 젓이외의 유동식을 차츰 먹기 시작하게 된다. 젓뭇 때 먹인 음식에 대한 질문 결과 <표 8>과 같다. 암죽·미수가루등 아기음식을 만들어먹었다가 50.24%, 어른의 음식에서 덜어내어 약간 달리 만들었다가 50.24%, 어른과 같이 먹었다가 13.59%이었다. 김중숙(1977)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어른과 같이 먹인 경우가 2배나 되었으며, 파는 이유식을 사먹인 경우는 적게 나타났으며 성은모(1982)의 결과를 볼때 16.9%가 파는 이유식을 사먹인 것을 볼

때 지역적특성으로 인한 적절한 이유식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못되며 이유식품에 대한 열성과 지식의 부족등으로 풀이된다.

<표 8> 이 유 음 식

이 유 식	구	N	%
암죽, 미수가루등 아기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207	50.24
어른이 먹는 음식에서 덜어내어 약간 달리 만들었다		86	20.87
어른과 같은 음식을 조금 먹였다		69	16.75
팔고 있는 이유식을 사먹었다		19	4.61
기 타		21	5.10
계		412	100

4) 이유에 관한 지식의 습득源

“이유에 관한 예비지식은 주로 어디서 얻었습니까?”의 결과, 가족이나 친지로 부터가 45.63 %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TV·라디오·신문잡지에서가 23.79 %, 의사나 육아책에서 21.84 %, 강습회나 학교는 8.74 %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얻은 지식이 많음을 볼 때 전통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양육방법이 그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메스콤이나 의사·육아책에서 얻은 지식도 많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올바른 이유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학력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홍보교육이 유아의 건강지도상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5) 이유의 태도

“아기가 음식을 잘 먹지 않을때 어떻게 했습니까”에 대한 결과 여러가지 방법으로 먹여봤다가 45.15 %, 달래서 먹도록했다가 39.32 %,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때까지 안주었다가 9.22 %, 때리고 야단쳤다가 2.91 %, 기타가 3.40 %로 나타났다. 문승규(1973)의 결과,야단친 경험이 17.7 %인 것을 볼때 10년이 지난 오늘날 이유에 대해 덜 엄격한것을 알 수 있었으며, 되도록 유아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는 방법으로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의 이유태도는 상당히 관대하고 너그러운 것으로 생각된다.

3. 배변 훈련

1) 소변의 훈련 開始期

“소변훈련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었습니까”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년후가 36.41 %

<표 9> 소변훈련 시작시기

시작시기 \ 구분	N	%
1 년 전	70	17.0
1 년 후	150	36.41
1년반 후	104	25.24
2 년 후	88	21.35
계	412	100

33.98%로 가장 많았으며, 1년반후가 28.64%, 2년후가 23.30%나 되어 소변훈련보다 대변훈련이 늦게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92%가 1년후에 실시된 것을 볼때 생후 1년이 지나서 유아가 대체로 걸을 수 있고 설 수 있을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재은(1975)의 연구결과 대소변가리기 훈련 시작시기가 9개월전이 36.1%, 1년전이 32.3%, 1년 이상이 31.6%인 것과 비교해 볼때 농어촌 어머니들의 훈련에 지나치게 관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대소변가리기 훈련은 어머니가 강요하지 않고 유아의 성숙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것으로 생각된다.

로 가장 많았으며 1년반이 25.24%, 2년후가 21.35%로 대부분 1년후에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연(1979)의 연구결과 1년이내가 30.9%, 1년후가 38.03%, 1년반후는 18.31% 2년이상이 15.49%인 것과 비교할때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이 소변가리기 훈련을 늦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때가되면 가리겠지” 하는 여유있는 사고방식과 바쁜 일손으로 인하여 훈련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대변의 훈련開始期

“대변훈련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습니까”에 대한 응답결과 <표 10>과 같다. 1년후가

<표 10> 대변훈련 시작시기

시작시기 \ 구분	N	%
1년 전	58	14.08
1 년 후	140	33.98
1년반 후	118	28.64
2 년 후	96	23.30
계	412	100

<표 11> 훈련시 사용도구

사용기구 \ 구분	N	%
요강이나 깡통	133	32.28
아기용 변기	190	46.12
화 장 실	12	2.91
아 무 데 나	57	13.84
기 타 장 소	20	4.85
계	412	100

3) 훈련시의 사용기구

“대소변 훈련을 할때 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의 응답결과 <표 11>과 같이 아기용변기를 46.12%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요강이나 깡통이 32.28%로 다음 順이었다. 아무데나 보게한 경우는 13.84%이었다. 김중숙(1977)의 결과,요강이나 깡통이 76.4%, 화장실이 16.3%, 아무데나 누인것이 1.1%인 것과 비교할때 많은 차이점이 있다. 농어촌지역은 화장실이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이용율이 적은 것으로 풀이되며, 아무데나 보게한 경우가

많은것은 농어촌지역의 주택구조와 지리적특성으로 인한 문화양식의 차이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훈련시의 방법

훈련기간 동안 “대소변을 잘 가렸을때 어떻게 했습니까”의 응답결과 칭찬해 주었다가 92.72 %로 대부분을 차지 했으며 내버려 두었다는 6.31 %, 상을 주었다는 0.97 %였다.

<표 12> 훈련시 방법

방 법	구 분	N	%
때리고 야단쳤다		98	23.79
망신을 주었다		38	9.22
조용히 타일렀다		232	56.31
내버려 두었다		44	10.68
계		412	100

“잘 가리지 못했을때 어떻게 했습니까”의 응답결과 <표 12>와 같다. 조용히 타일렀다가 56.31 %, 때리고 야단쳤다가 23.79 %이었다. 김재은(1975)의 결과 때리고야 단친다가 22.5 %, 위협하기만 한다가 38.9 %인 것과 비교할때 본 연구결과, 오늘날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이 상당히 대소변훈련에 엄격하지 않고 허용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임연(1979)의 연구결과 년대가 오

래될수록 대소변훈련이 엄격하지 않았고, 년대가 현재로 내려올수록 대소변에 대한 통제를 가하고 있음을 볼수있다는 결론과는 상반됨을 얻었다.

5) 대소변에 대한 태도

“아기에게 대소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습니까?”의 응답결과 <표 13>과 같이 나타났다.

표 13 대소변에 대한 태도

태 도	구 분	N	%
생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했다		141	34.22
더러운 것으로 생각케하여 청결을 강조했다		257	62.38
대소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10	2.43
기 타		4	0.97
계		412	100

더러운 것으로 생각케하여 청결을 강조했다가 62.38 %나 되었으며, 생리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했다가 그 다음으로 34.22 %이었다. 관심이 없었다는 2.43 %로 대소변에 대한 관심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더러운것으로 생각케하여 청결을 강조한 경우가 많은 것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전통을 중요시하는 관습에서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수유·이유·배변훈련 방법 및 태도에 대한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결과 및 해석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지역 어머니들은 아기를 주로 집에서 분만했으며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는 28.64%이었다. 이는 분만시 안전분만 개조율을 높여 분만에 따르는 위험이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조직적인 방법이 있어야겠으며 농어촌지역의 병원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유의 방법 및 태도

대부분 모유로 수유하고 있으며 인공유로 수유하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주로 분만후 2일 이내에 젖을 먹이기 시작했고 3일 이내에 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수유기간은 대체로 유아가 원할때 아무때고 주었으며 시간을 정해서 주되 요구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도 많이 쓰였다. 수유 때에는 주로 어머니가 유아를 쓰다듬어 주면서 먹였으며 중얼중얼 얼리며 주기도 하였다. 1년~1년반까지 주로 수유를 계속했으며 1년반 이후까지 수유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2. 이유의 방법 및 태도

9개월~1년에 주로 이유하기 시작했으며 이유의 방법은 주로 약을 바르거나 젖과 암죽을 섞어 먹이면서 시행하였으나 유두에 약을 발라서 젖을 댄 경우가 많았다. 이유식으로는 주로 암죽이나 미수가루등을 만들어 먹였으며 팔고있는 이유식을 사먹인 경우는 아주 적었다. 이유에 대한 지식은 주로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얻었으나 메스콤이나 의사와 육아책에서 습득하기도 하였다.

3. 배변훈련의 방법 및 태도

1년~1년반에 주로 배변훈련을 시작했으며 2년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소변의 훈련을 대변훈련보다 다소 빨리 시작했으나 대체로 늦게 이루어졌다. 훈련 때에는 주로 아기용변기를 사용했으며 요강이나 깡통을 사용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아무데나 누인 것도 13.84%나 되었다. 훈련과정에서 잘했을 때는 대부분 칭찬을 해주었으며 잘못했을 때는 주로 조용히 타일렀고 때리고 야단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대소변에 대한 태도는 대소변을 더러운것으로 생각하게 하여 청결을 강조했다.

이상의 결과 수유·이유·배변훈련의 방법 및 태도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았으며 허용적이고 관대하였다. 이는 대체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외래문화와의 접촉기회 부족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풀이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양육방법은 과학성이 결여되어있고 절제가 부족하여 의존성이 길러질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전통문화에서 생활의 예지로 얻은 고귀한 풍습도 많이있다. 예를들면 지혜로운 양육

방법을 계승하는것도 좋으나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와 과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 자연적 전수방법에 의하여 훈련하고있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사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방법 및 태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료는 농어촌지역의 양육방법을 파악하여 유아의 성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앞으로 유아들의 성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유아의 바람직한 성격형성과 올바른 자녀양육 그리고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법이 모색 실천되어야겠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계몽교육도 함께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 재은, 한국 어머니의 육아실체에 관한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 1975, 26.
- 김 종숙, 가구수입정도에 따른 자녀 양육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7.
- 김 효규譯, 스포츠박사의 육아전서. 서울: 정음사, 1974.
- 논 승규, 한국농촌에 있어서의 育兒慣行. 한국연구총서 I.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민영순, 교육심리학新講. 서울: 문음사, 1978.
- 성은모, 한국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안현화, 한국 유아의 사회화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61.
- 유안진, 육아론. 서울: 문음사, 1982.
- 윤태림,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0.
- 윤태림,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1964.
- 이영석, 발달심리기초. 서울: 학문사, 1982.
- 임 연, 한국어머니의 육아법 조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 장병림, 아동심리학. 서울: 범문사, 1973.
- 조정순, 가정교육과 아동의 사회적특성에 대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방법에 따라. 교육연구 (이화여대), 1971. 37.
- 주정일, 아동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1.
- Corday, R. Toilet training and "the terrible twos". *Clinical Pediatrics*, 1967.
- Dollard, J., & Miller, N. E.,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N.Y.: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0.
- Marlow, D. R., *Pediatric nursing*. W.B. Saunders Co., Phil. 1969.
- Fomon, S.G. *Infant nutrition*, W.B. Saunders Co., Phil. 1967.
- Kardiner, A. *The psychological frontiers of society*. N.Y.: Columbia Press, 1950.
- Maier, H.W., *Three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N.Y.: Harper & Row, 1965.

Sears, R.R., Maccoby, E.E., & Levin, H. *Pattern of child rearing*. N.Y.: Row Peterson and Company, 1967.

Silvio, L., & Paiva, M.D.: Pattern of growth of selected groups of breast-fed infants in Iowa city. *Pediatrics*, 1953, 11.